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열다섯 번째

일곱째 인과 예언적 진리의 봉함 해제

Jeff Pippenger

2023-11-13

그가 일곱째 인을 여실 때, 하늘에는 약 반 시간쯤 고요함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었고,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드리도록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한 그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 천사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요한계시록 8:1-5.

우리는 미국이 첫째 하늘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불을 내려오게 할 역사적 시기 동안, 하늘 성소에서 쏟아지는 거룩한 불을 다루고 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일곱 우리가 말한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계시는,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까지 봉함되어 있어야 했다. 또한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은혜의 시기가 막 닫히려 하는 것으로도 묘사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하라.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럽게 하라.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를 행하게 하라. 거룩한 자는 여전히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0, 11.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할 때, 일곱째 인이 열립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였다. 요한계시록 8:6.

은혜의 시기가 닫히면, 사람들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은혜의 시기는 닫혔고,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또 나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을 땅에 쏟으라 하는 것을 들었다. 요한계시록 15:8, 16:1.

요한계시록 9장부터 11장에서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쏟는 일곱 천사와 다르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일곱 나팔로 나타난 심판의 예언적 특징은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적용 범위와 그 효과에 있어 서로 대응한다. 더 직접적인 연결로, 나팔 심판은 직접 재앙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재앙들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던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걸지도 못한다. 요한계시록 9:20.

일곱째 인의 개봉은 은혜의 기회가 끝날 때가 임박했다는 맥락 속에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일곱째 인은 요한과 바울 모두가 기록하지 말라는 금지를 받았던, 일곱

천둥이 '말한' 바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을 나타낸다.

사자가 포효할 때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었다.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었을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였으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내게 이르되,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하여 두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3, 4.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봉함되었고, 22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봉함되었던 그 예언이 풀리게 되어 있었으며, 일곱째 인과 마찬가지로 그 예언은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풀리게 되어 있었다.

화이트 자매는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봉하게 한 것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그의 책을 종말의 때까지 봉하라고 명하셨을 때와 동일한 조치였다고 밝힌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책이며, 계시록에서 예수께서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인을 떼실 때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되므로, 다니엘에게 그의 책을 종말의 때까지 봉하라고 명하신 분도 유다 지파의 사자이셨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자신의 말씀을 봉하시고 또 푸시는 분이니, 그분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이 일곱 우레가 그 음성을 발한 후에, 작은 책에 관하여 다니엘이 받았던 것과 같은 명령이 요한에게도 내려온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하여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1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담긴 내적 증거는, 일곱째 인의 봉함이 풀리는 일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의 봉함이 풀리는 일에 대한 두 번째 증언임을 보여준다. 다니엘서의 봉함이 풀리는 것과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의 봉함이 풀리는 것은, 예언적 메시지가 봉함에서 풀릴 때 드러나는 진리가 본질적으로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것을 지식이 더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요한계시록은 인을 하나씩 차례로 떼어 내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것은 완전한 날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이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밝은 빛과 같아서, 온전한 날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빛난다. 잠언 4:18.

"진리"의 봉인이 풀릴 때, 그것은 점진적이다.

만일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휼과 심판, 권면과 책망 가운데 그분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자주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진리는 우리가 귀 기울이면 우리를 겸손과 복종,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제시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는 우리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여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계신다. 진리는 점진적이다. 간절히 구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빛을 받을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물음이어야 한다. Signs of the Times, 1881년 5월 26일.

2023년 7월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다.

일곱째 인과 또한 일곱 우레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린다. 그것은 일곱째 인을 떼는 것과 일곱 우레로 대표되는 동일한 메시지에 대한 세 번째 증언을 제공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세 가지 표상은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를 이루는 세 증인이다. 이 세 증인의 봉인 해제는 점진적이다. 그 효과도 또한 점진적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곧 성화입니다.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에 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를 통해 성화되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7)라고 덧붙이셨다. 성화는 순종이 계속되는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계속 부추기는 한, 자아 정복을 위한 싸움은 거듭해서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 진리가 영혼을 성화시킬 것이다.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하는 모든 환경에 따라 좌우되게 만들었던 성품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될 것이다.” 믿음과 행함, 85쪽.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이해의 점진적 전개는 2023년 7월 말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때 공개되기 시작한 진리들에 대한 이해의 과정은 2020년 7월 18일 직후에 시작되었다.

일곱째 인의 개봉에 관한 기별에서 밝혀지는 진리는 한밤중 소리라는 이정표를 다루고 있다.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한밤중 소리는 진리가 점진적으로 전개된 것이었으며, 그 사실은 새뮤얼 스노의 사역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첫째 천사의 운동으로 셋째 천사의 운동을 예증하신다. 이는 그분이 언제나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를 이루는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와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진리에는 결국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이들이 성취하게 될 역사적 과정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역사적 과정을 밝혀 주는 것이 바로 일곱 우레의 숨겨진 역사이다. 일곱째 인은 그 상세한 역사적 과정의 한 부분이지만, 그 계시는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때부터 시작되는 시기를 가리키며, 이로써 14만 4천의 인침이 완료되는 때를 표시한다. 1844년 여름의 엑서터 야영회가 보여 주듯, 일곱째 인의 점진적 개봉은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가 완전히 전개될 때 시작된다. 이 글들은 여러분 각자를 엑서터 야영회로 초대하는 개인적인 초청장이다.

일곱째 인이 열릴 때, 제단에서 나온 불이 땅에 던져지고, "소리와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있다. "소리"는 나팔을 가리킨다.

크게 외치라, 주저하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여 내 백성에게는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는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 58:1.

나팔의 소리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기별을 가리킨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높이라고 명할 때, 그들은 크게 "외쳐야" 한다. 한밤중 외침의

기별은 일요법령의 지진의 때 직전에 봉인이 풀린다. 곧 임할 일요법령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은 큰 외침으로 부풀어 오르는 기별이다. 이사야가 “크게 외치라”고 말할 때, 그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에 합류하는 두 번째 음성인 셋째 천사의 큰 외침과의 결합을 가리킨다. 크게 울려 퍼지는 한밤중 외침의 기별은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에 대한 경고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팔 기별이 불려질 때, 자신들이 유예 기간의 마지막 순간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명령은 유예 기간의 종결에 대비하라는 경고이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슬람의 셋째 화의 나팔 심판이 미국을 강타하려 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다. 일요법령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음성” 중 첫째인 한밤중 외침이 큰 외침으로 부풀어 오른다. 그때 아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이 나오도록 부름을 받는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마지막 큰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큰 음성으로, 즉 점점 더 큰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1888년 자료, 710.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점점 커지는 힘'은 여호와께서 친히 십계명을 반포하신 시내산에서 예표되었다. 그 역사에서 산이 흔들리고 연기로 뒤덮이면서 나팔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모세조차 심히 떨었다. 그때 백성은 두려움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청했다.

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기를 간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명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음이라. 심지어 짐승이라도 산에 닿기만 하면 돌로 치거나 창으로 찔러 죽이라 하셨고, 그 보이는 바가 이처럼 두려워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떠다' 하였음이라.)
히브리서 12:19-21.

"그들"이 "들었던" "음성"은 셋째 천사의 경고 기별의 "음성"을 나타낸다. 두려움에 찬 고뇌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의 "음성"으로 응답했다. 일요일 법령 때의 "음성들"은 또한 기름을 달라고 하는 미련한 처녀들로도 표현되며, 슬기로운 처녀들의 "음성"은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사라고 말한다.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 일요일 법령 때의 미련한 재림교인 처녀들처럼 자신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음을 깨닫는 자들의 "음성"은 산들과 바위더러 그들 위에 떨어지라고 외친다. 일요일 법령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사건으로 예표된다.

그 엄숙한 때에 나타난 신적 능력의 놀라운 현현들—점점 더 크고 무시무시해지는 신비로운 나팔 소리, 산의 모든 비탈에서 메아리치는 천둥의 광음, 번개의 섬광이 험준하고 엄숙한 봉우리들을 밝히고, 그리고 구름과 폭풍과 짙은 흑암 가운데 시내 산 꼭대기에 삼키는 불과 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러한 여호와의 임재의 표징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은 두려움에 놀려 기가 꺾였고, 온 회중은 '멀리 서 있었다.'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떠다'고 외쳤다. 그때 사납게 요동치는 만상을 누르고, 그의 율법의 열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위대한 거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참된 상태를 드러내자, 그들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압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위로운 능력은 떨리는 그들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보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간청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규범이 그들 앞에 제시되자, 그들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의 가증한 성격과 자기들의 죄책을 일찍이 없던 방식으로 깨달았다. 사인즈 오브 더 타임스, 1881년 3월 3일.

제단에서 나온 불이 땅에 던져질 때, "음성들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있다.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미국은 그 "불의의 잔"을 완전히 채우게 될 것이며, "국가적 배도" 다음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불의의 잔"은 네 번째 세대에 가득 차는데, 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뿔이 모두 격화되는 반역의 네 세대를 거쳐 나아가기 때문이다. 일요일 법령은 "우레와 번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시점을 가리키며, 그 심판은 네 대에 이르기까지 내려진다.

"아모리 족속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대가 지나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음이라' 하셨다. 이 민족은 우상숭배와 부패로 두드러졌지만, 그 죄악의 잔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는 사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악을 참아 주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때에도 더 나아지는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분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었다."

오차 없이 정확하게 무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계신다. 회개하라는 부르심과 함께 그분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동안, 이 장부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부의 수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수치에 이르면, 그분의 진노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 장부는 마감된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난다. 그들을 위한 자비의 간구는 더 이상 없다. 증언들, 5권, 208.

화이트 여사는 일요일 법령과 함께 시작되는 심판들을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한밤중의 위기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던 어리석은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에게는 너무 늦었다고 가르친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그 파괴적 심판의 때가, 아직 진리를 듣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비의 때'가 된다.

"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때를 알기만 한다면! 이 때를 위한 시험의 진리를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이 많다. 하나님의 영께서 애써 역사하고 계신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파괴적 심판의 때는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비의 때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자비로이 돌아보실 것이다. 그의 마음은 자비로 감동되어, 들어오려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문이 닫힌 지금도 구원하시려는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다." 증언 9권, 97쪽.

일곱째 인이 열릴 때에는 "소리들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있다. 계시록 11장의 그 "지진"이 처음 성취된 "때"는 프랑스 혁명이었고, 그 "때"의 완전한 성취는 곧 도래할 일요일 법령 때에 "땅의 짐승"의 "지진"이다. 바로 그 "때"에 일곱째 인이 완전히 열린다. 십자가는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며, 십자가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마태복음

25:51.

십자가에서 사탄의 왕국이 무너졌듯이, 주일법 때에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러 오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 요한복음 19:30. 전투는 이미 승리로 결판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 정복자이신 그분은 영원의 높은 곳에 자신의 깃발을 꽂으셨다. 천사들 가운데 기쁨이 없었겠는가? 온 하늘이 구주의 승리에 환호했다. 사탄은 패배했고, 자기 왕국을 잃었음을 알았다. 시대의 소망, 758.

십자가의 지진은 “진리”, 곧 알파와 오메가를 나타낸다. “진리”는 시작이요 가운데요 끝이다. 그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열셋째, 마지막 글자를 합쳐 만들어진 히브리어 단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지진이 있었고, 부활하실 때 또 한 번 지진이 있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은 무덤, 그리고 부활하실 때의 지진이었다. 두 번의 지진 때 모두 무덤들이 열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셨을 때, 바위들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렸으며, 어떤 무덤들이 열렸다. 그분이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승리자로 일어나셨을 때, 땅이 요동하고 하늘의 영광이 그 거룩한 곳을 둘러 비추는 가운데, 그의 부르심에 순종한 많은 의로운 죽은 자들이 그가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나왔다. 은총을 입어 일으킴을 받은 그 성도들은 영화롭게 되어 나왔다. 그들은 창조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택함받은 거룩한 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감추려 할 때, 하나님은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증언하고 그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무덤에서 한 무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택하셨다. 초기 저술, 184쪽.

첫 번째 지진 때 무덤들이 열렸고, 마지막 지진 때는 그리스도의 무덤이 열렸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은 지진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각에 자기들의 무덤에서 나온다. 그 지진은 십자가로 예표된 일요일 법령을 뜻한다. 그러므로 일요일 법령의 그 시각에 두 번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여인이 해산의 진통을 겪기 전에 일어나는 십사만 사천의 탄생을 상징하고, 둘째는 그녀의 산고 가운데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먼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아무런 해산의 진통 없이 낳는다. 그런 다음 일요일 법령의 때에 그녀의 산고가 시작되어 둘째 아이를 낳는다. 처음에는 엘리야를 낳고, 마지막에는 모세를 낳는다. 일요일 법령은 요한계시록 7장의 쌍둥이들의 부활의 때이다.

일요일 법령 때 일곱째 인이 완전히 열리면, 하늘에는 반 시간 동안 침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분의 아들과 함께 고통하셨다. 천사들은 구주께서 겪으시는 고뇌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사탄의 군단들에게 둘러싸이신 그들의 주님과, 전율케 하는 신비한 두려움으로 그분의 본성이 짓눌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수금 하나도 켜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만일 천사들의 무리가 침묵의 슬픔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자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의 광채를 거두어 내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경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그분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더 잘 이해했을 것이다. 시대의 갈망, 693.

지진의 한 시간 중 첫 반시간은 두 증인의 첫 탄생 또는 부활을 나타낸다. 그 반시간 동안 두 증인은 인침을 받는다. 그들은 일요일 법령 이전에 인침을 받아야 하는데, 나머지 반시간 동안 무덤에서 다른 자녀를 불러내는 표징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는 일요일 법령 위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남녀를 봄으로써만 살아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진리를 믿는 이들이 진리를 통해 성화되고, 높고 거룩한 원칙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을 발로 짓밟는 자들 사이의 경계선을 높고 숭고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봄으로써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거짓된 휴일을 지키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낸다.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은, 때와 법을 바꾸려 하였던 불법의 사람의 표식을 지닌다. 성경훈련학교, 1903년 12월 1일.

여자의 처음 난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첫 열매로 지칭되는 십사만 사천이다. 그들은 일요일 법령을 둘러싼 위기와 투쟁 속에서 다른 양 떼가 알아보아야 할 표징을 나타낸다. 그 표징은 안식일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불법이 되는 때에도 십사만 사천은 그것을 굳게 수호한다. 화이트 자매는 그들의 기치를 "임마누엘 왕자의 피로 물든 깃발"이라고 부른다.

환상 중에 나는 두 군대가 참혹한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았다. 한 군대는 세상의 표장을 단 깃발이 선두에 섰고, 다른 한 군대는 임마누엘 왕자의 피로 물든 기치를 앞세우고 있었다. 주님의 군대에서 부대들이 차례차례 적에게 가담함에 따라 기치들이 하나둘 먼지 속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었고, 반대로 적의 진영에서 지파들이 차례차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연합하였다. 하늘 중천을 나는 한 천사가 임마누엘의 기치를 많은 손에 쥐어 주었고, 위대한 장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정렬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제 각자의 위치를 취하라.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주를 돕는 일에 나아오라, 강한 자들을 대적하여 주를 돕는 일에 나아오라." 증언, 제8권, 41.

피로 물든 깃발은 일요일 법령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다른 양 떼가 보아야 한다. 그 깃발은 14만 4천이 들고 있는 떠오르는 빛이다. 그 깃발은 피로 물든 깃발이므로 붉은 색이다. 그 깃발은 여리고 전투에서 표상되었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맞아 보호하고, 창문 밖에 홍색 줄을 늘어뜨려 여호수아의 군대에 대한 자신의 복종을 드러냈을 때이다. 라합은 일요일 법령 위기 속에서 그 홍색 표징을 보고 받아들여 여호수아의 군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둘째로 난 자녀들을 대표한다. 라합이 사용한 그 홍색 줄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라합의 집안을 멀하지 말라는 표징이었다.

라합은 일요일 법 위기 때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상징하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십사만 사천의 장자들을 상징한다. 주홍색 줄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상징이다. 그 주홍색 줄은 하나님의 보호를 얻으려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준 명령이었다.

보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네가 우리를 달아 내렸던 그 창에 이 붉은 줄을 매어 두고, 또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온 가족을 네 집으로 데려오라. 여호수아 2:8.

아직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보아야 할 표징은 주홍색 실로 상징되는데, 그것은 안식일이며 또한 두 쌍둥이를 구별하는 표지이기도 하다. 쌍둥이의 만이는 14만 4천으로, 그들은 임마누엘 왕자의 피로 물든 기치를 손에 들고 있다.

그가 열방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또한 에브라임의 시기가 사라지고 유다의 대적들은 끊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 위로 날아가고 동쪽 사람들을 함께 노략할 것이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뻗칠 것이요 암몬 자손은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이사야 11:12-14.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는 주홍색 표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만이를 표시하는 주홍색 실이다. 첫째 쌍둥이는 Zarah이고, 둘째는 Pharez이다.

그녀가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보니 그녀의 태 안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녀가 해산하는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산파가 그 손을 붙잡아 그 위에 붉은 실을 매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였다. 그런데 그가 손을 도로 거두자, 보라, 그의 형제가 나왔다. 산파가 "네가 어떻게 비집고 나왔느냐? 이 터짐이 네게 있다" 하고 말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파레스라 불렀다. 그 뒤에 손에 붉은 실을 매고 있던 그의 형제가 나왔고, 그의 이름은 자라라 불렀다. 창세기 38:27-30.

세라는 떠오르는 빛을 의미하고, 베레스는 터져 나옴을 의미한다. 쌍둥이인 베레스가 그의 쌍둥이 형제 세라의 손에 있는 주홍색 실의 표징의 떠오르는 빛을 볼 때, 그는 "터져 나와", 곧 바벨론에서 나온다. 세라가 주홍색 실의 떠오르는 빛을 알아보는 것은 나중에 태어난 쌍둥이가 먼저 태어난 쌍둥이에게 복종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으리라. 보라,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리라. 누가복음 13:29, 30.

일곱 우레의 감추어진 역사는 세 개의 이정표를 가리킨다. 첫 번째와 마지막 이정표는 실망의 사건들이다. 첫 번째 실망과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 사이의 기간은 지체 기간이다. 둘째 이정표인 한밤중의 외침 이후의 기간은 인치는 때이다. 인치는 때라는 그 기간은 마지막 실망으로 끝난다.

일곱 천둥의 숨겨진 역사는 세 개의 이정표를 식별한다. 첫째와 마지막 이정표는 지진 때 무덤들이 열리는 것이다. 첫 번째 무덤이 열리는 때와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 사이의 기간은 지체 기간이다. 둘째 이정표인 한밤중의 외침부터의 기간은 봉인 기간이다. 그 봉인 기간은 마지막 무덤이 열릴 때 끝난다.

일곱 천둥의 숨겨진 역사 속 세 단계에 대한 이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도 증언된다. 무덤의 첫 번째 열림은 그리스도께서 물의 무덤으로 들어가신 세례로 상징되었고, 마지막 무덤은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 사이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기별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한밤중 외침을 예표하였다. 그분은 그 선포 사역을

1,260일 동안 행하셨다. 십자가 이후에는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스테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260일 동안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반복되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권능을 받았다. 그 후 그들은 죽임을 당해 1,260일 동안 거리에 내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 권능을 받았다.

다음 기사에서 이러한 진실들을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그 영혼을 영적 생명으로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진리를 믿노라 하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난 원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유일한 보장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품성을 본받아 그분의 영으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별거벗은 자들이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죽은 자들이 종종 산 자로 간주된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일컫는 '구원'을 이루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없다.

"이 부류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잘 상징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3년 1월 17일.